



3면

“급이형 저감제 통한 축산냄새 저감 대책 마련을”

전주매일

2020년 7월 27일 월요일 (음 6월 7일) 제258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투과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빌 6번지

지역문화 · 관광 활성화 ‘해법찾기’

균형위 주관 ‘전라권 균형발전 정보협력포럼’ 개최 ON-OFF라인 병행... 차별화된 플랫폼 구성 기대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FIT)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2020년도 제1차 균형발전 정보협력포럼을 지난 24일 원광대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발전된 광역·중추도시보다는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중소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먼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과 정보협력’(원광대학교 원도연 교수)이란 주제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관광 디지털 콘텐츠의 진보’(원광대학교 이남희 교수)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이 진행됐다.

이어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전주 한옥마을 빅데이터 분석, 활용사례 발표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문화와 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산학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빅데이터 활용 모빌리티 물류 보관·픽업 관광플랫폼, 스마트 문화관광플랫폼 운영방안, 대학생 참여형 지역 문화관광 연계 플랫폼 활성화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끝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향자 선임연구원(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이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보협력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특히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회의와 화상 회의 활성화 트렌드를 반영, 이날 토론회도 진행됐다.

현장 토론자 6명 외에도 강원대학교 오현아 교수, 제주연구원 남윤섭 연구위원, 광주전남연구원 문찬형 연구위원, 경상남도의 ‘뜻있는 주식회사’ 김현정 대표가 원격토론자(ON-LINE)로 현지에서 토론에 참석, 권역별 문화관광 시책과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이여진 연구위원은 “역사적으로 문화관광 콘텐츠 분야에서 다양한 아이템이 산재해 있는 익산에서 본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본 포럼을 개최하게 된 가장 큰 의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인류의 가장 큰 영역인 문화와 관광을 어떻게 즐기고 지역경제를 이끄는 주축의 하나인 문화관광산업을 어떻게 활성화 하느냐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데에 있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문화관광 콘텐츠에 대한 빅데이터화와 플랫폼 구성으로 국민은 풍부한 양질의 문화관광을 즐길 수 있고 관련분야 일자리 창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다”라며 지속적인 정보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북도 신원식 정책기획관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포럼 개최가 찬란한 천년의 역사를 이어온 사회, 정치, 경제, 행정 문화 중심지 전북 익산에서 ‘대한민국 미래 천년문화’ 시작을 알리는 계기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제1차 균형발전 정보협력 포럼 개최를 통해 전남·북을 아우르는 전라권만의 독특한 문화관광 통합 플랫폼이 구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익산시와 같은 중소도시가 문화관광 플랫폼과 같은 정부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역이 문화관광 트렌드 창출과 관련산업 일자리 창출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통놀이 문화포럼 성료 '2020 전통놀이문화포럼' 및 전통놀이 판을 깔다·생활 속 전통놀이 야외행사'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동안 한국전통문화전당과 전주향교 일대에서 성황리에 펼쳐졌다. 사진은 24일 김승수 전주시장이 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

도내 장애인 복지시설 4개월만에 문 열어

전북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관 중이었던 도내 장애인복지관 및 주간 보호시설 등을 다시 단계적으로 재개한다.

해당 시설은 장애인복지관 13개소, 장애인체육관 1개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32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2개소 등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시대 장기화로 사회복지시설 휴관이 4개월여 이어지며 ‘돌봄 공백’이 또 다른 사회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여름철 무더위를 앞두고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무더위 쉼터 확보가 시급한 목적이 있다.

이에 전북도와 시군은 지난 17일까지 시군별로 사전 준비사항을 점검하

고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했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 우선 1단계로 10명 이내 소규모 개별,실외 프로그램만 운영, 2주 후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운영 프로그램을 확대 검토할 계획이다.

도와 시, 군은 그동안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 재개를 위해 시설별 방역계획,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방안, 방역관리자 지정 및 배치,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비치했다. /유호상 기자

전통놀이 판 제대로 깔았다

행사 성료... 현대화 · 생활화 · 세계화 비전 제시

문화부와 (재)한국전통문화전당이 주최하고, 전주시가 후원한 ‘2020 전통놀이문화포럼’ 및 ‘전통놀이 판을 깔다·생활 속 전통놀이 야외행사’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동안 한국전통문화전당과 전주향교 일대에서 성황리에 펼쳐졌다.

코로나 19와 우천속에서도 진행된 이번 행사는 우리 전통놀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애정을 확인할 수 있는 전통놀이 한마당이였다.

먼저, ‘전통놀이, 현재에서 미래를 본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통놀이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고민하고 전통놀이문화의 조성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 전통놀이 분야 전문가 및 관련단체, 일반 등이 참여해 열린 토론을 펼쳤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민속학회’가 전통놀이 기초조사 연구와 전통놀이 현장조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형호 박사가 현시대의 전통놀이 전승 양상을, 어린이 놀이 전문가 이상호 박사가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통놀이의 지속가능성과 활용방안을, 유동환 건국대학교 교수가 전통놀이문화 조성확산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참가자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외 전문가로는 유럽 전통놀이 스포츠 협회장(Pere Lavega Burgus)이 ‘전통놀이: 현재 및 미래의 과제를 위한 네트워킹’을, 덴마크 레고 본사에서 시각마케팅 리더 아티스트로 일하는 Seon JEON 씨가 ‘레고의 변화와 비전’을 발표하고 우리의 전통놀이가 레고처럼 오래 사랑받는 놀이도구로의 발전가능성과 비전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EBS에서 똑딱이 아빠로 활동하고 있는 서정대학교 김중석 교수가 ‘교육적 활용면에서 바리본 놀이의 창의성’을, <아빠놀이 백과사전>의 저자 조준휴 대표도 <아빠놀이 백과사전>의 클

라우드 편딩 성공 스토리를 통해 전통놀이의 적응 가능성을, ‘웃놀이 전국 청춘 챔피언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아리랑 스킵’의 문현우 대표가 나서서 전통놀이가 투자 및 사업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 확립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포럼 참가자들과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전통놀이 야외행사와 함께 펼쳐졌는데 (재)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개발한 ‘가족행사형 전통놀이 콘텐츠’를 사전접수로 신청한 가족단위 시민을 대상으로 전통놀이를 즐기며, 온라인게임에서는 즐기지 못한 생생한 즐거움을 만끽하는 시간이 됐다.

사방치기, 투호 율놀이 등의 새롭게 재탄생 된 전통놀이들을 전주 향교 내부의 5개 코스를 통해 선보였으며, ‘철교’라는 전통놀이를 활용해 만든 ‘조선명탐정’이라는 미션 수행 형식의 프로그램과 딱지치기, 제기차기, 비석치기 등 총 15개의 전통놀이 프로그램이 곳곳에 펼쳐져 행사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으로 추억과 재미를 안겨줬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 지침에 따라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해 프로그램당 1시간에 최대 10명만 참여할 수 있도록 입장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또한 현장 방역지침에 따라 체열 확인 및 마스크 착용, 손세정제 비치는 물론 방역 관리 요원을 따로 배치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민들로 하여금 안전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전주시는 한옥마을 내 전통놀이 전용공간을 조성해 연중 전통놀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을 오는 9월 개관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다. 이 공간을 통해 전주시는 온라인게임 플랫폼을 능가할 전통놀이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윤성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